

‘소리책’ 출판에 거는 몇 가지 기대

김슬옹 | 목원대 강사

나는 최근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요시모토 바나나의 《도마뱀》, 양창순의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두려운가》 등을 읽었다. 전공 논문과 저술 마감에 쫓기는 상황에서 비전공 분야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런데 그 기적은 녹음된 소리책(녹음도서, 오디오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식으로 출판된 소리책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것을 살짝 얻어 들은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짬짬이 들었는데도 일주일 만에 세 책을 독파할 수 있었다.

내가 소리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또물또 통합읽기 연구회에서 펴낸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동화 읽기쓰기》 인세로 서울맹학교(교장 김기창)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구입한 100만 원어치의 소리책을 기증하면서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리책은 아주 유용한 도구다. 점자책에 비해 소리책은 가격이나 제작과정 등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소리책은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듣기 때문에 단순히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그런데 문제는 소리책 제작과정이다. 지금 소리책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기관에서 그 기관 임의대로 만든 것이다. 복지관, 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 학교 등에서 만드는데, 내가 세 기관을 확인한 결과 중복 녹음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 소리책 제작 공동 협의회를 만들고, 서로 자료를 공유해 더 많은 소리책을 만드는 방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출판사에서 아예 활자책과 소리책을 동시에 출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좋다. 왜냐하면 자가운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므로 의외로 소리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나 박경리의 《토지》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이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소리책 때문에 활자책이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 소리책은 활자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고 또한 두 갈래의 책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소리책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한다면 출판사도 적자는 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소리책에 대한 저작권도 유지할 수 있어 재정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각 출판사에서 어렵다면 소리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출판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아니면 국립도서관에서 전문 기구를 만들어 전국 각 기관에 소리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최근 점자책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일반 문서파일을 그대로 점자로 전환해 주는 기계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문서파일을 소리책으로 전환해주는 기계를 만든다면 더욱 많은 책을 쉽게 소리책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소리책을 MP3 같은 파일로 전환해 인터넷에서 듣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상중이다. 더불어 읽는 세상은 무척 아름답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